

# 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영장기각 규탄”

### “불구속 상태, 진술왜곡·당시 근무자 입맞출 가능성 높아”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9일 모두 기각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정장)에 “성역없이 수사를 계속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TF 등은 13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 측은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이 총출동했다고 거짓발표했고, 입도 뺏기지 안했던 퇴선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한 이들이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명령이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정당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 여긴 판결을 내렸고 이런 영장기각 판단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 특수단은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성역없는 기소해야 한다”면서 “해경지휘부 6인 모두 부작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 모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해경상황실에 있었던 해경들과 함께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높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당시 세월호 수사한 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형호제하는 ‘소윤’ 윤대진 검사인데, 검찰은 스스로 자기 환부를 도려내는 성찰적 자세를 가지고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 ◆ 단신 ◆

### 제때 울린 화재경보기·빠른 행인신고 큰불 막아

제때 울린 화재경보기와 행인의 빠른 신고가 화재를 예방했다. 13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57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A씨(77·여)의 주택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원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음식물 냄비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요리를 하던 중 시장애 간 사이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냄비에서 연기가 나자 주방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제때 작동했고 화재경보기는 경보음과 함께 ‘화재 발생’이라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때마침 주택 앞을 지나던 중학생이 이를 듣고 119에 신고하면서 큰 불로 확대되는 것으로 막을 수 있었다.

### “이혼하자” 필리핀 아내에 흥기 휘두른 30대 남편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출신 아내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5분쯤 구미시 삼모동의 자기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씨(27)가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며 집을 싸 집을 나서자 흥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지구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얼굴과 목 등을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해 달라’며 집을 쾅겨 집을 나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술 취해 방파제 건넌 40대 2명 바다 빠져 1명 사망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방파제 위를 건넌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결국 숨졌다.

13일 부산해경,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1분쯤 부산 사하구 감전동 서방파제 구조물(폭 30cm) 위를 건넌 A씨(40)와 B씨(40)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다.

B씨는 스스로 헤엄쳐 나와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35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 인천 공영주차장 화재, 딸과 다툰 딸과 피운 번개탄

주말 대낮에 차량 3대가 소실된 인천 공영주차장 화재 사고 원인은 딸과 다툰 한 아버지가 차량 내부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11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공영주차장에서 접수된 주차 차량 3대 소실 사고의 원인은 A씨(45)의 카니발 차량 내 피워진 번개탄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수사기관에서 “딸(13)과 다툰 뒤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공영주차장을 찾았다”면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번개탄을 피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번개탄에 불이 붙자 차 밖으로 빠져 나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불로 카니발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와 K7승용차 일부가 소실돼 32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당시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있던 목격자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고, A씨가 운전석 뒷문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 국토부장관 얼굴에 나체 합성한 선거 현수막 ‘논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도심에 현직 장관 얼굴을 합성한 선정적인 그림과 함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주말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광주 서구를 J후보 선거현수막...선관위 실태조사 나서

김현미 장관 현수막에 국토부 “법적조치 등 대응 고심”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는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됐다.

해당 빌딩은 풍암 호수공원 앞에 자리하고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뿐더러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공원을 많이 찾는 곳이다.

외설적인 현수막이 도심 한가운데 버티기 걸려있지만 해당 건물에 한 서구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수막이 걸리기 전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13일 해당 현수막에 대해 광주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자 선관위는 서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무소속 J후보가 해당 건물 6층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해 현수막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

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 J후보가 또다시 현수막을 걸 수 있어서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의 내용과 합성사진 등을 확인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 광주상공회의소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 중흥건설